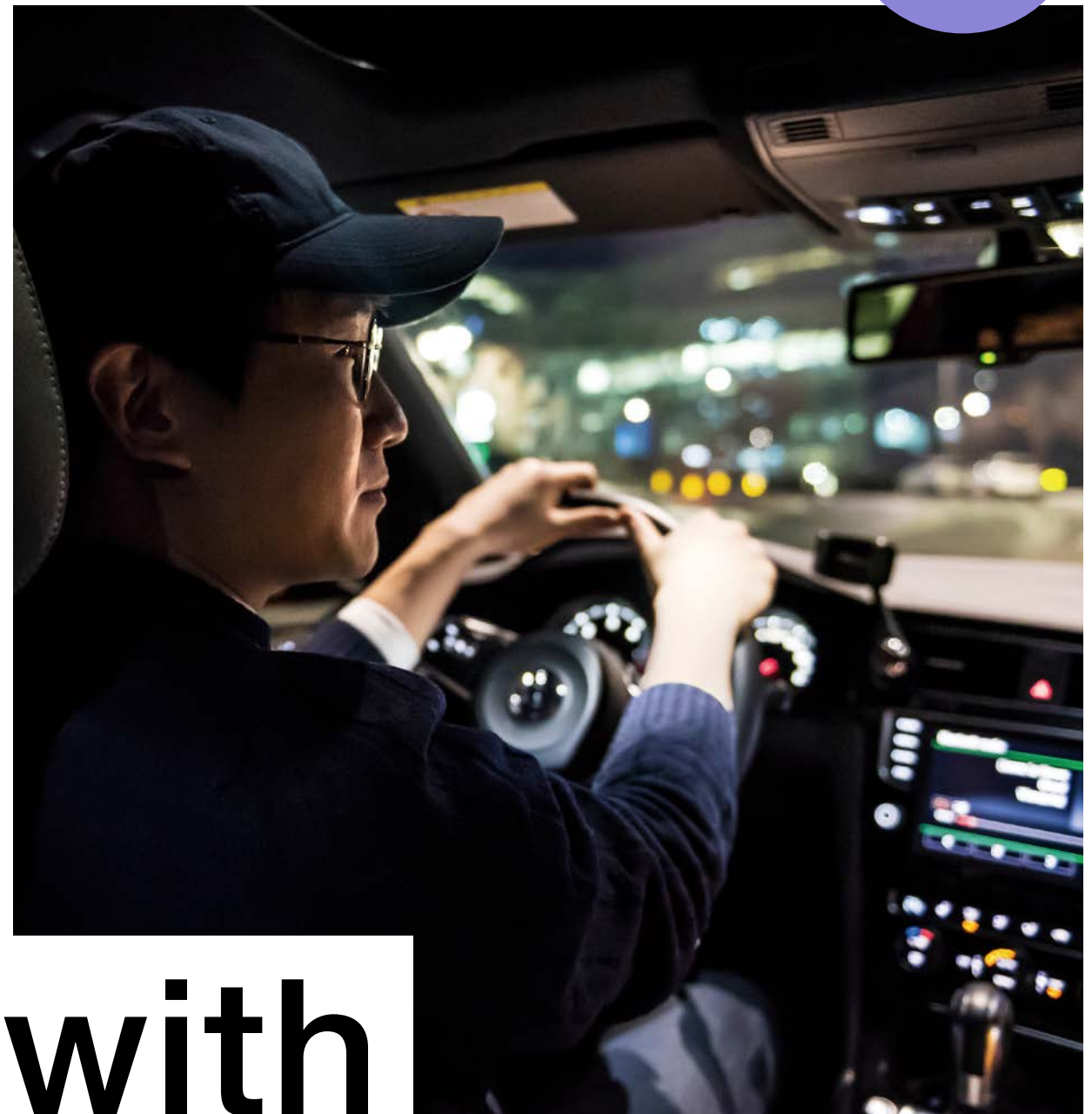


partners

partners with kakao

03



with kaka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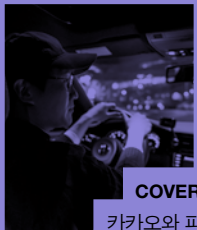
#기몽 #병무청
#김영탁감독 #김민섭작가
#Kakao클래스 #카카오특하는할아버지
#할머니폰트 #베이비키트 #속마음버스

파트너의 꿈과 땀, 카카오가 있다

kakao

kakao

partners



COVER STORY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4호 표지의 주인공은 카카오톡 드라이버 기사로 일하는 김민섭 작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대리사회> 등의 저서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김 작가가 대학을 떠나 도로 위에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with kakao



카카오가 구축한 생태계에서

꿈의 영역을 넓혀가고



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Jimmy's talk

지난 한 분기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혹시 '벌써 3월 중순이라니!'를 맘속으로 외치고 있진 않으시죠?

이번 호의 주제는 '경계를 넘나든다'로 잡아봤습니다.

흔히 '혁신'이라는 단어는 거창한 어떤 것, 첨단 과학 기술과 연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혁신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방법을 꾸준히 찾아 보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혁신을 이루는 훌륭한 방법이자 혁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동물 짬방' 이모티콘 시리즈로 좋은 결과를 낸 이모티콘 작가 키몽은 현재 다음웹툰에 <키몽툰>이라는 만화를 연재 중입니다. <대리사회>의 김민섭 작가는 카카오드라이버로 돈을 벌면서 스토리펀딩을 통해 책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글을 통해 카카오와의 경험을 기고했습니다. 영화 <헬로우 고스트>를 연출했던 김영탁 감독은 카카오페이지에서 <곰탕: 미래에서 온 살인자>라는 소설을 연재 중이고요.

온·오프라인과 콘텐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입영통지서를 전달하는 병무청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무부 등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행정 정보를 전하는 것에도 경계를 넘나들며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했던 카카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며 세대 간 경계까지 넘나드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터뷰도 함께 만나보세요.

이번 호를 읽으면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경계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3월을 마지막으로 카카오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납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카카오와 파트너들이 더 잘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 닿는 대로 도울 예정입니다. 설렘 가득하고 산뜻한 일을 찾아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있든 없든 카카오는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플랫폼이고, 후임 대표이사들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매일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인 임지훈

partners

dialogue	‘아재 개그’의 재탄생 키몽	14
	입영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아요 병무청	24
story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김민섭 작가	32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김영탁 감독	48
party	숫, 카카오의 비결 파트너께만 알려드려요 Kakao 클래스	62

with kakao

series	난 카카오톡으로 우리 손주랑 얘기해 모두를 위한 연결	66
record	까막눈 할머니, 폰트를 만들다 같이가치 with Kakao	74
	손바느질에 담긴 마음을 아기에게 다가치펀드	80
info	플친, 맞춤 행정으로 가는 길 카카오톡	84

partners

카카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호에는 카카오와의 첫 만남 이후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를 만나들며 일과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업무의 혁신을 일궈낸 파트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재 개그’의 재탄생

입영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아요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췌, 카카오의 비결 파트너께만 알려드려요

‘아재 개그’의 재탄생

‘알파카가 파카를 입으면?’ ‘부엉이가 밤에 라면을 먹으면?’ 등 동물의 이름을 소재로 한 유쾌한 언어 유희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이는 곧 ‘동물 짤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 이모티콘 시리즈와 다음웹툰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순도 100% 언어 유희 콘텐츠’라는 독특한 장르를 확장하고 있는 키몽 작가를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작업실이 정말 아늑하네요.
어떤 공간인가요?**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사용하는 작업실이고, 저는 1년 전에 처음 들어왔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업에 집중할 공간을 찾던 중 마침 집 근처에 공유 작업실이 있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웹툰, 모던 한국화, 일러스트, 동화책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자극도 받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가 아닌 작업실로 출근할 때마다 제가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곤 해요.

**실제로 보니 ‘키몽’ 캐릭터랑
정말 닮으셨네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몽’은 제 분신 같은 존재이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키몽을 처음 그렸어요. 그때부터 낙서를 좋아해서 만화를 따라 그리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텔레토비’가 유행이었고,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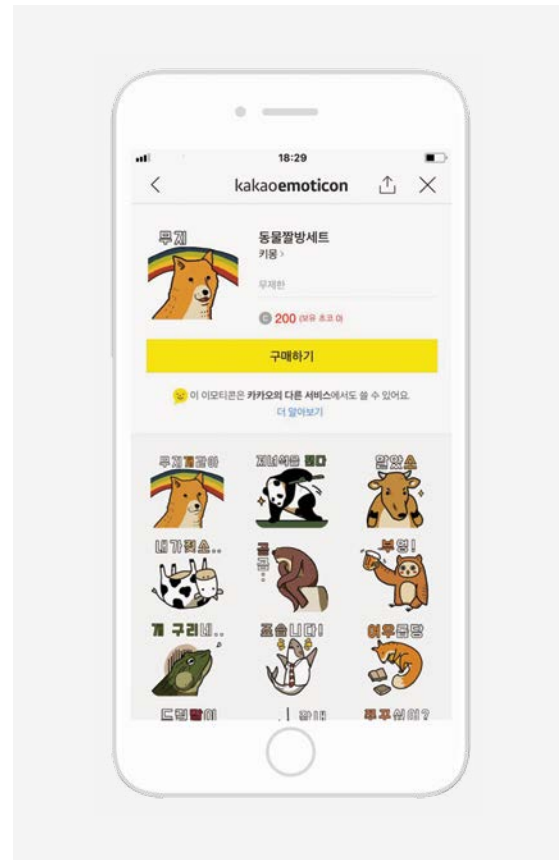
그리기 쉬운 ‘뚜비’를 보고 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키몽이라는 이름은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이 제 이름 ‘김홍렬’을 줄여서 부르던 별명에서 따왔어요. 군대에서도 그림을 계속 그려서 현재 모습으로 완성했구요. 군인들은 제대하고 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키몽이라는 캐릭터가 엄청나게 유명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제대한 뒤 금방 현실을 깨닫고는 착실히 수업 듣고 졸업하기 바빴지만요.

**작가님의 ‘동물 짤방’이 2년 전 SNS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한 건가요?**

어느 날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기다리는데 웃긴 말장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친구를 붙잡고 ‘부엉이가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부엉!’ 하고 장난을 쳤는데 친구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웃긴데, 이걸 말로 하니 느낌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동물 짤방’ 시리즈의 시작이에요. 소위 ‘짤방’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을 좋아해서

키몽
본명 김홍렬. 유쾌한 언어 유희와 귀여운 동물 캐릭터를 내세운 일러스트 ‘동물 짤방’ 시리즈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큰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 이모티콘을 출시했고, 현재 다음 웹툰에서 ‘키몽툰’을 정식 연재 중이다.

휴대폰 사진첩에 잔뜩 저장해두곤 했는데, 제가 그린 짤방을 사람들이 쓰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이름을 이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를 귀여운 동물 캐릭터에 접목시켜보기로 했죠. 때마침 일반인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2015년 겨울이었는데 지금의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처럼 편리한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었고, 카카오톡의 사업 제휴 안내 페이지 안에 이모티콘 제안을 받는 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작업을 해서 제안했는데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쉬웠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면 좋겠다 싶어서 24종의 짤방을 고화질 버전으로 만들어 제 SNS에 올렸죠.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다시 한번 이모티콘 제안을 넣었고, 두 번째에는 심사를 통과했어요. 그렇게 2016년 11월 키몽의 '동물 짤방 세트' 첫 번째 시리즈가 이모티콘으로 출시됐습니다.



한 번의 실패 후 마침내 이모티콘이 출시되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평소 SNS를 통해 제 그림과 작업하는 일상을 꾸준히 공유해왔어요. 이모티콘 심사에 탈락했을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기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온 분들의 축하를 많이 받아서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도 이모티콘을 출시하는 것을 보고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모티콘 덕분에 '키몽'을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을 실감합니다. 지금도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등의 행사장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통해 제 그림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웹툰 연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제 작품 중에 '아재 개그'와 말장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 그린 '언어의 마술사 알파카파카' 시리즈가 있어요. 재미있다고 댓글을 단 분 중에 마침 다음웹툰 PD님이 계셨던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웹툰으로 정식 연재를 하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는 제가 감히 도전할 영역이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싶은 것을 중구난방으로 그렸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언어 유희, 말장난 콘셉트에 맞춰 콘텐츠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016년 한 해 동안 '알파카파카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해 말 PD님과 다시 연락이 닿아 정식 웹툰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프리랜서 작가의 길을 선택한 것이 이 무렵인가요?

네, 맞아요. 원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 다중 채널 네트워크)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2016년 당시 온라인에서 인기 많은 1인 창작자의 동영상 콘텐츠 등을 유통하고 관리하는 MCN 회사가 각광받고 있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창작자로 섭외되어 일을 시작했는데, 자체적으로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제 그림을 그렸고요. 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이를 수익으로 연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죠. 마침 그때 카카오 이모티콘을 출시하게 되었고 다음웹툰 정식 연재까지 제안받으면서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프리랜서 작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웹툰 '키몽툰'은 시즌 1에 비해 시즌 2는 분량도 길고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있어요. 작업 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시즌 1은 주 2회 연재하며 10~20컷의 짧은 컷툰이었는데, 시즌 2는 주 1회에 50~60컷으로 분량이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작업하는 양이 늘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서사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상에서 소재를 찾아 키몽툰만의 코믹 요소를 더하고, 매화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댓글을 보면 작가님의 개그 코드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자들과 댓글을 유심히 읽어보는 편인가요?

그럼요. 첫 화의 댓글을 지금도 찾아서 읽어보고 있어요. '키몽툰'을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첫 화부터 읽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흔적을 남기진 않았을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한번은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웹툰 소재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고민을 꺼낸 적이 있어요.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제 웹툰에 응원 댓글을 열심히 쓰겠다며 격려해주셔서 훈훈하게 채팅방을 나왔죠. 시간이 지나고 문득 생각해보니 이분들이 정말 댓글을 달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웹툰으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독자들과 '오카방(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준말)'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부끄럽지만 '키사모(키몽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이름의 오카방이 생겼어요. 제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아재 개그를 공유하는 채팅방이라고나 할까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는 아랑곳 않고 곳곳이 자신의 개그를 선보이는 독자분들의 즐거운

모임이에요. 저도 이곳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말장난을 허락받고 웹툰 소재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모티콘과 웹툰 연재 외에 다른 수익이 있나요?

패키지 디자인이나 캐릭터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히 홍보 문구를 쓸 때 언어 유희적 요소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키몽툰'의 콘셉트와 잘 맞다고 생각해서 일을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알파카파카의 아재그림퀴즈'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적도 있고요. 키몽툰의 콘텐츠를 살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동물 팔방 시리즈'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 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키몽툰'만 봐도 독자층이 웹툰을 주 소비자인 20~30대부터 말장난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 아재 개그를 실제로 구사하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거든요. 저만의 작품 철학이라고 말하기 거창하지만, 여태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누구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또 제 그림을 보고 색깔이 예쁘다고 말씀해주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이 캐릭터를 더욱 귀엽고 돋보이게 해서 이모티콘이나 엽서, 가방, 문구류 등의 제품으로 만들기 적합한 것 같아요. 노란색을 특히 좋아해서 작업할 때도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색과 무난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궁금해요. 원래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대학 전공은 건축학이에요. 미대는 그림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학창 시절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교과서나 공책에 낙서하는 것 좋아하고, 가끔 친구들과 스트레스 풀러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요.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블로그나 개인 SNS에



“ 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즐거웠지만,
이를 수익으로 연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죠. 마침 그때 카카오
이모티콘을 출시하게 되었고 다음웹툰
정식 연재까지 제안받으면서 회사에
다니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

꾸준히 제 그림을 올린 것이 여기까지 온 원동력인 것 같아요. 건축학과에서 배운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이 지금 작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동기들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건축 포트폴리오를 만들지만 저는 웃긴 그림 그리는 데 쓰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요.

**‘동물 짬방’ 시리즈 외에
그려보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

한창 감성이 총만한 시절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그려보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바닷속 고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어요. 고래는 포유류인데 바닷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신비롭고 묘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림 실력을 더 키워서 근사한 일러스트의 ‘우주고래도감’을 완성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의 올해 계획이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키몽툰’을 잘 이끌어가서 독자들도 ‘키몽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게 애정을 갖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또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많아요. 지난겨울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 나가면서 배지, 손거울, 스티커 등을 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어요. 콘텐츠 만드는 것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소장하고 싶어 할 만한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보고 싶어요. ‘키몽툰’만의 유쾌한 콘셉트를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확장해보고 싶습니다. ■

**이모티콘의
화려한 외출**

대체 불가능한 센스와 갖고 싶어 견디기 힘든 사랑스러움으로 중무장한 카카오 이모티콘.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은 이모티콘 중에서 웹툰과 캐릭터 사업까지 진출한 성공적인 OSMU(One Source Multi Use) 사례를 소개합니다.

키몽 작가 ‘키몽툰’

카카오 이모티콘 인기로 끌어 웹툰화한 사례입니다. 작가 특유의 재치와 센스가 돋보이는 ‘동물 짬방’을 기승전결이 있는 유쾌한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웹툰을 통해 2017년 5월부터 정식 연재 중입니다.



이치성 작가 ‘그것들의 생각’

일상의 평범한 사물을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산 ‘그것들의 생각’ 시리즈. 이모티콘 출시, 단행본 발간에 이어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캐릭터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임보련 작가 ‘바나&나나’

‘바나나 딸이 이치년~’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임보련 작가. 카카오 이모티콘 성공 이후 평범한 회사원에서 전업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시작으로 캐릭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오버액션토끼’, ‘에비츄’ 등 해외 인기 이모티콘

국내 이모티콘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은 해외 이모티콘 역시 팝업 스토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캐릭터 상품 판매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키몽 작가가 만든
이모티콘, 갖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입영통지서, 카카오톡으로 받아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치는 병무청. 병역 문제는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병무청의 민원 처리에선 공정성과 정확도가 생명이다. 하루에 수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온 병무청은 지난해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7년 연속으로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데도 성공했다.



병무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의 중앙 행정 기관. 병역 자원을 관리하며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 동원 등 모든 병무 행정을 담당한다. 변재호 정보기획과 주무관은 지난 13년간 국민과 병무청이 만나는 창구를 구축해왔다.

병무청을 떠올리면 ‘군대 보내는 곳’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우리나라의 병무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무청의 관리 대상이 되지요. 구체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육·해·공군병 모집 및 선발,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등 병역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무관님께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2005년부터 병무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통계청에서 6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보다 앞서 전산학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병무청 본청의 정보기획과 소속으로, 병무민원상담 시스템 등 대민(對民) 서비스 프로그램과 서버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을 만나는 창구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 병무청에서 2011년 모바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병역 안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고, 2016년 10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모바일을 활용한 병무 행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병무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접수와 처리 과정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루는 병무 민원은 기본적으로 병역의무자가 병역 제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지원, 병역 감면이나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 군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등 다양한 사무가 여기 포함되죠.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국민신문고나 병무민원상담소의 ARS 상담 등을 통해 처리하고요. 지난해 병무민원포털로 접수된 민원은 180만 건, 병무민원상담소 ARS 상담은 300만 건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나요?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접수된 민원 처리 결과나 ARS 상담 내용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상담원이 유선상으로 소집 날짜, 장소, 준비물 등의 정보를 안내해도 바로 메모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금방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민원인이 관련 내용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취지에서 마련됐죠. 그런데 매년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가 점점 증가해서 2016년에 70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 정책에 따라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다 보니 장문 메시지 사용률이 2012년 0.1%에서 2016년 74.0%로 급증했고요. 그래서 문자 발송에 소요된 비용만 2016년 기준으로 1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도 난관이었지만, 대량 발송으로 인해 저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병역의무자나 통신사가 스팸으로 오인하는 것도 문제였죠. 그때 떠올린 것이 카카오톡의 알림톡 서비스였습니다. 당시 택배 회사들이 배송 현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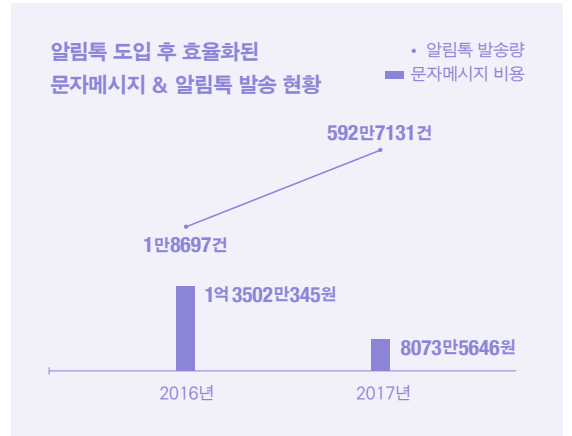
알림톡으로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 것이 2016년 1월이었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셨나요?

10개월가량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알림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보안성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등 법적 사항을 검토해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후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인터넷망 대신 병무청 전용선을 적용하고, 실무자들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문자 발송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알림톡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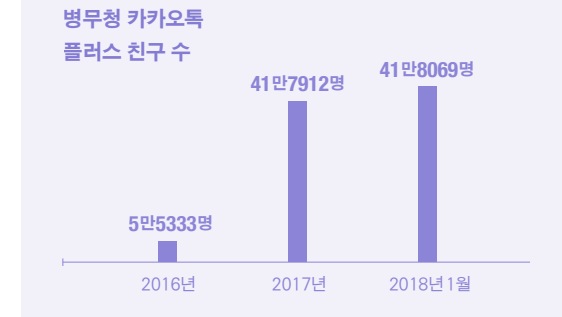
시범 운영부터 극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첫 시범 운영 때는 민원 처리 결과나 모집병 합격 여부, 사회복지요원의 입소 안내 사항 등 본청 업무의 일부를 문자 대신 알림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시기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은 200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문자메시지보다 수신율이 높고 전송 속도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2017년 2월부터는 전국의 각 소속 기관에서도 병역의무자에게 정보성 메시지를 보낼 때 알림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알림톡으로 전하는 내용은 전화 문의 상담 내용, 통지서 이메일 발송 알림,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안내 등으로 확대했고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도 지난해 2월 말 약 13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월 기준 약 47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던 것을 알림톡으로 전환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알림톡에서 특별히 도움이 된 기능이 있었나요?

병무청 플러스친구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것이 '키워드 자동 FAQ'였습니다. 대화창 하단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키워드로 설정하고 답변을 등록해놓으면, 병역의무자가 해당 키워드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자동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예요. 지난해 11월 오픈해 두 달간 지켜보니 약 19만 명이 이 기능을 이용했더라고요. 활용도가 꽤 높다고 판단해서 점차 키워드 개수를 늘려갔어요. 현재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절차 안내, 현역병 입영일자 신청 안내, 카투사 지원 및 선발 안내 등 총 8개의 키워드 FAQ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림톡과 키워드 FAQ 도입 후 ARS를 통한 단순 문의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담소에서 하루 동안 처리하는 문의 전화가 2000통이 넘는데, 미처 응답하지 못하는 통화 대기 건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무자들도 업무 효율성을 체감하기 때문에 알림톡 활용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알림톡 도입 후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무엇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해 한 해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는 총 950만, 그 비율은 7대3 정도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알림톡과 문자메시지 총 발송 건수는 135% 증가했지만 전체 비용은 7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어요. 장문 문자메시지 사용은 줄고 알림톡 활용이 늘었으니까요. 또한 스팸 메시지로 처리되는 위험 부담이 없고, 수신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죠.

병무청을 알림톡으로 만나는 민원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반응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지만,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듣는 얘기로는 확실히 문자메시지보다는 알림톡을 선호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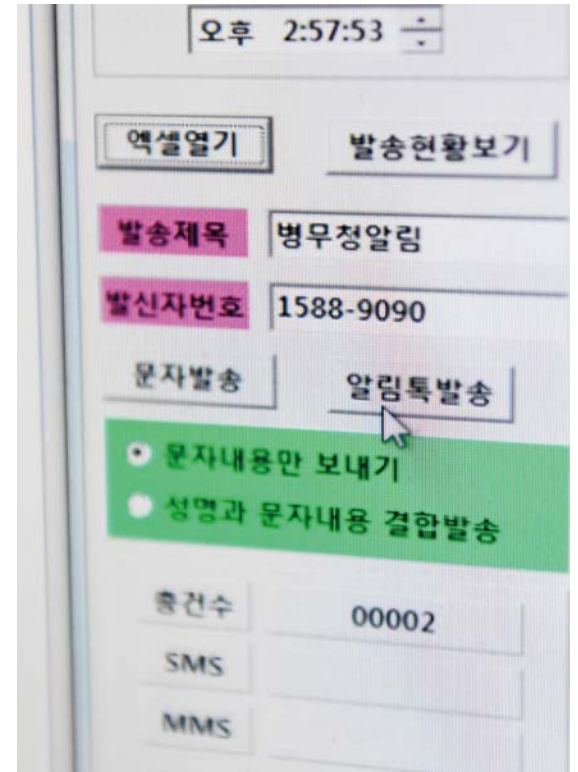
같아요. 대부분의 민원인이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 카카오톡 사용 환경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장문의 문자메시지는 통신사에서 자동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번거로웠는데 알림톡이 해결해주었고,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일주일 전, 2일 전에 일정 알림톡을 받으니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간단한 문의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병무청에서 근무한 10여 년간 민원 서비스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만 발송해도 다른 기관에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거든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원 처리 효율성과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만, 민원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유관 부서를 설득해야 했다면, 이제는 각 부서가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서 최적의 선택지를 찾는다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알림톡이라는 편리한 서비스가 생기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특별히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현역병 입영일자 가능 여부 설문조사’를 알림톡을 활용해 진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정 일자에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조사해서 훈련소 수용 인원을 조절해야 하는데, 기존의 ARS 설문조사 대신 설문 페이지를 만들어 알림톡으로 배포하고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동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ARS 방식보다 응답률이 높고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은 물론이고, 설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좋았죠. 7일 이상 소요되던 설문 수집 및 정리 기간도 알림톡을 사용하니 3일 이내로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업무를 맡은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준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바일’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바람에 훨씬 바빠졌지만요.



앞으로 1:1 상담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필요성은 분명 느끼고 있지만 정부 기관이 대국민과 쌍방향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n명의 국민을 응대하면서 소화할 수 있는 n의 범위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지금만 해도 병무청 상담원들이 ARS는 물론이고 국민신문고, 문자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통한 채팅 상담까지 맡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적 단순한 상담은 상담원의 음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챗봇(chatbot·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채팅 로봇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물론 검토 후 진행이 확정되더라도 준비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나가 민원인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니 답변의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테니까요.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옮겨온 것처럼, 향후 몇 년 안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밖에도 도입 검토 중인 서비스가 있나요?

최근 검토 중인 것은 온라인 등기 서비스예요. 입영통지서와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고 수신 확인이 안 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등기로 대체해보려고 해요. 등기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신율도 높아지고 등기 발송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카카오가 이 서비스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또 한 번 성공적인 민원 서비스 개선 사례를 함께 만들어보았으면 해요.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 기관이

민원인의 만족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군대를 보내는 병무청이 국민들에게는 결코 반가운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색안경을 끼고 병무청을 대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희가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병무청의 문턱을 낮추고 병역의무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터놓고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뒷받침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직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시도하지 않은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대국민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과 병무청이 만나는 창구를 구축하는 담당자로서 카카오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무 행정과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병역의무자에게는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병무청이 되고자 합니다. ▣



병무청 소식이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알림톡,
스팸 문자와 작별할 기회**



Q. 알림톡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메시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메시지 발송 요청 및 발송 결과 확인 절차에 관한 기술규약(정보)는 기업, 정부 기관 등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상품입니다. 발송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알림톡'과 '친구톡' 상품으로 나뉩니다. 알림톡과 플러스친구 메시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송 환경입니다. 플러스친구 메시지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되며, 웹페이지에서 수동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알림톡은 기업 고객이 API를 활용해

기업 고객의 서버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플러스친구와 달리 구매 고객, 회원 가입 고객 등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보다 쉽고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또 알림톡은 플러스친구와 친구를 맺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상 '광고성 정보의 예외' 중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친구톡'을 통해 친구를 맺은 고객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Q. 어떤 기업 및 기관에서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나요?

A. 쇼핑업체(위메프, 현대홈쇼핑, G마켓 등), 택배사(CJ대한통운,

우체국 등), 보험사(AIA생명, 동양생명 등), 보안업체(ADT캡스, 에스원세콤 등), 은행(카카오뱅크) 등의 분야에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선 약 80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단(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정부 기관(병무청, 정부청사관리본부, 특허청 등), 지방자치단체(서울시청, 부산시청 등)에서 다양한 정보성 메시지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은 국문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문학자 김민섭’이 아닌 ‘309동1201호’라는 가명을 먼저 알았고,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젊은 교수님’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그를 접했다. 대학 울타리 안, 강단 위의 삶을 벗어나 다른 ‘노동’, 다른 ‘생활’을 시작한 그가 파트너인 카카오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김민섭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현대소설
연구자였으나, 대학을 박차고 나왔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펴낸 뒤 〈대리사회〉, 〈아무튼,
망원동〉을 잇따라 낸 작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다.

계속, 글을 쓰기로 하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글을 쓰면서, 나는 대학에서 나왔다.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없어서 오전에는 맥도날드에서 물류 하차 일을 했고 오후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논문을 썼다. 그러다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 사람을 위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고 책에 쓰면서 대학에서 나왔다. 실제로 맥도날드가 대학보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이었다. 나는 대학 바깥에 오히려 더 큰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로 했다.

서른이 넘도록 10년 가까이 문학만 공부해온 사람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우선은 논문 쓰는 동안 미뤄두었던 다른 ‘글쓰기’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지만, 솔직히 막막했다. 그때 카카오에서 나를 찾아왔다. 창작자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후원 형식으로 구매하는 카카오의 창작자 플랫폼 ‘스토리펀딩’의 임석빈 PD였다. 그는 나에게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잘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그 이후 스토리를 써본다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다.

나는 “에이, 제 글이 뭐 재밌다고 사람들이 사겠어요” 하면서도, 손해 볼 것은 없어 보여서 그 제의에 응했다. 나는 사실 논문을 쓰면서도 학회에 20만~50만원의 돈을 납부하는 쪽이었지 글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였다’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개설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달 동안 1651만356원이 모였다.

후원자들에게 서명한 책을 리워드로 발송하고 남은 돈은 그대로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가 되고, 무엇보다 나와 가족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증거로 남았다. 이때 인연을 맺은 김귀현 카카오 창작자플랫폼기획파트장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서 나온 저에게 후의를 베풀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카카오와 스토리펀딩팀에는 정말 감사드려요. 내일을 상상하게 해준 ‘은인’ 같은 분들이세요.” 덕분에 나는 ‘계속’ 글을 쓰기로 했다.

새로 시작한 노동, 카카오드라이버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대학에서 무엇이였을까?’ 하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녔다. 나는 대학 내의 상상 가능한 여러 공간에서 노동했다. 그러나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면서도 강의하고 연구하는 동안에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에 취해서 그런대로 버티나갔던 모양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붙잡을 무엇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타인의 욕망을 대신 수행하면서도 나를 주체로 믿으며 강의실과 연구실에 섰다. 그건 참, 마치 ‘대리인간’과 같은 삶이었구나 싶은 것이었다.

그런 감각과 함께 내가 해결해야 할 당장의 문제도 있었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기가 어려웠다. 먹고살기 위해 다른 방식의 ‘노동’이 필요했다. 결국 3개월 만에 아내에게 “나 다시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아내는 나에게 “이번에는 롯데리아나 버거킹으로 가게?” 하고 물었다. 사실 맥도날드에서는 내가 나가면 매장이 망한다고 붙잡긴 했지만, 그래서 언제든 다시 오라고 점장이 말해두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노동을 해보고 싶었다. 깔깔대고 웃는 아내가 알미워서 “다른 거 할 거야”라고 답하고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시작했다.

무척 즐거운 고민이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동안 몸이 고되긴 했지만 배운 것이 많았다. 대학에서 ‘호기롭게’ 나온 데는 세상 어디에서든 공부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 생긴 믿음도 한몫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던 중 ‘대리’라는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어차피 노동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대리하며 돈을 버는 것이라면 아예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상징되는 공간으로 가보자 싶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단어가 아예 들어간 하나의 직종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대리운전’이었다. 나는 자동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운전하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검색창에 그 단어를 검색하자 ‘카카오’가 연관 검색어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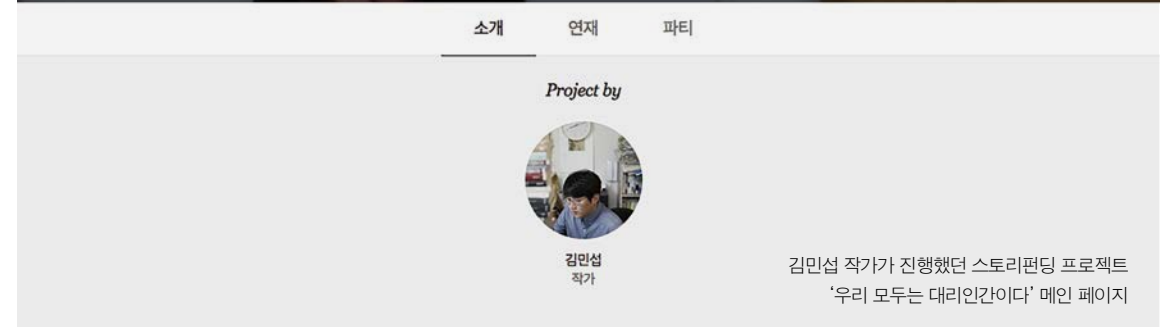
왔다. ‘어, 너희가 (또) 거기에서 왜 나와?’ 싶어서 기사를 클릭하자 카카오가 ‘카카오 드라이버’라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게다가 며칠 후에 1기 기사를 선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카카오’라는 회사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16년 5월 31일, 카카오드라이버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대리운전 기사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건 카카오가 나에게 준 선물이었다.

‘대리사회의 대리인간’ 프로젝트

주변의 누군가가 대리 기사를 찾으면 나에게 그가 있는 위치와 목적지가 제공된다. ‘수락’ 버튼을 누르고 그에게 가서 운전하고 나면 다음 날 오전에 미터기에 찍힌 금액에서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가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렇게 간편한 방식으로 노동이 가능하다는, 무척 놀라웠다.

저녁이 되자 정말로 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어찌지?’ 하고 고민하다 그것들을 모두 날려먹었다. 주변에 대리 기사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가도 되겠다’ 싶은 것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배정된 콜입니다’ 하는 메시지가 떴다. 또 어느 것은 너무 멀다 싶어서 ‘어떻게 돌아오지’ 하고 망설이게 되었다. 그러다 밤 10시가 넘어가서 나는 ‘이러다가 일을 못 하겠구나’ 싶어, 다음 콜이 들어오면 아무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디에 가게 될지,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긴 뭐 대학에서도 그랬듯이 노동도 삶도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다.

목적지도 보지 않고 수락 버튼을 누르고 보니 참 먼 곳이었다. 손님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면서 정말이지 ‘망했다’ 싶었다. 게다가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손님은 3분



도 되지 않아 전화해서는 “아저씨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하고 물었다. 아직 초면도 아닌 사이인데 ‘아저씨’가 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는 그에게 “네 사장님,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답하고 열심히 뛰었다.

첫 운행을 마친 나는 강원 원주시 문막읍의 공단 지역에 홀로 남았다. 11시가 넘었으니 대중교통은 모두 끊겼고 우리집이 있는 원주 시내까지 택시비가 2만원 넘게 나올 거리였다. 첫 운행으로 내가 번 돈은 1만7000원이었다. 기다리다 콜을 받고 집 근처로 가면 좋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았다. 검색해보니 근처에 PC방이 있어서 거기서 밤을 새면 어떨까 하고 걸었다. 그렇게 걷다가 누군가를 만났다. 그 덕분에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대리사회>라는 책에 자세히 적어두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대리기사가 되었다. 주 5일이 아니라 주 7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했다. 그것이 그럭저럭 생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음 날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것도 즐거웠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그때그때 많은 배움을 주었다. 타인의 운전석, 거기를 100번쯤 오르고 내렸을 즈음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구나’ 하는 감각이 찾아왔다. 글을 쓰기 위해 시작한 노동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일찌감치 집에 들어갔다.

‘대리사회’라는 제목을 쓰고 그날부터 조금씩 글을 써나갔다. 마침 스토리펀딩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와서 ‘대리사회의 대리인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열었다. 대학에서 나온 이후 카카오라는 회사는 파트너처럼 계속 내 옆에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척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 카카오드라이버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그날부터 나는 대리운전 기사가 되었다. … 대학에서 나온 이후 카카오라는 회사는 파트너처럼 계속 내 옆에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척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

새로운 삶과 노동의 방식

어느덧 대학에서 나온 지도 2년이 넘어간다. 문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던 나는 이제 콜이 뜨면 1초 안에 적정 단가와 목적지와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상상할 수 있는 '대리기사'가 되었다. 어느 대리기사 선배는 “그게 0.1초 내로 선명하게 막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떠올라야 여기서 살아남지” 하고 말했다. 10년 넘게 일한 선배들은 정말로 그게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허세처럼 보여서 웃었는데 일하다 보니 정말로 그랬다. 말하자면 그들은 '전문가'이자 '숙련노동자'였다. 어디서든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서는 향기가 나게 마련이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만난 선배들은 대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한번은 20대 활동가들과 50대 대리기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들보다 오히려 그들의 옷매무새가 더 정갈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그들은 콜을 잡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러면서 “옷을 깨끗하게 입으려고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야 무시받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손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대리사회〉라는 책을 쓰고는 내가 대리운전을 그만둘 것으로 알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마감해야 할 글이 늘었고 계약 해둔 책도 몇 권 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일을 한다. 육체적인 노동과 글쓰기의 병행은 힘들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식처럼 되었다.

이른 아침에 근처 카페로 '출근'한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써야 할 글을 쓴다. 옆에는 카카오톡의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켜둔 휴대폰을 놓아둔다. 점심까지 몇 개의 콜이 나온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람들도 있지만 꼭 술에 취한 사람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운전하기가 겁나는 초보 운전자, 다리를 다쳐 김스를 한 사람,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하고 마취가 덜 풀린 사람, 친구에게 빌린 차를 가져다달라는 사람, 개인적인 일로 며칠 밤을 샌 사람 등 다양하다. 콜을 받으면 웬만하면 어떤 곳이





든 간다.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편찮기 때문이다. 이동하고 나면 근처 맛집을 찾아서 밥을 먹고, 카페에서 글을 쓴다. 저녁까지 콜이 나오면 타고 없으면 계속 글을 쓴다. 어차피 저녁이 되면 콜이 또 나온다.

11시는 콜이 가장 많은 피크타임이다. 이때 강남이나 합정 등 변화가에 있으면 집으로 가는 차를 골라서 탈 수 있다. 요즘은 회사에서 야근을 한 후 집으로 가는 콜이 있으면 타고 가면서 돈을 버는 직장인들도 꽤 있다고 한다. 집이 일산이고 직장이 강남이라면, 퇴근하는 교통비가 들지 않고 오히려 3만원 정도 벌 수 있다. 물론 매일 야근 할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콜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 몇 회만 해도 웬만한 적금을 들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게 된다. 나는 이제 대중교통이 끊기는 새벽까지는 웬만하면 일하지 않고, 변화가에서 글을 쓰다 집 방향으로 가는 콜을 잡는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인근 유원지로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켜다. 그러면 역시 집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부른 콜들이 뜬다. 가볍게 술 한잔 마신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 집 근처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것은 아내와 합의된 일이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데는 기름값과 밥값 등 이런저런 비용이 든다. 그러나 집에 갈 때 대리운전 콜을 받으면 그날의 지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이 알아서 운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갈 테니 나에게는 대리운전 콜을 받으라고 말한다. 우리는 남들과 같이 즐겁게 쉬다가 콜이 들어오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각자 다른 차를 운전하고는 집에서 만난다. 이것은 나의 삶과 노동이, 가족의 삶과 노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일상이다.

노동은 언제나 치열하고 눈물겨운 것이 아니고, 이처럼 조금은 더 즐겁게 삶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는 기존 업체들과 달리 월 프로그램 사용료라든가 기타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늦게 배차된다거나 하는 불이익도 없다. 수수료 20%에 더해 출근비, 보험비, 입금수수료 등 여러 명목으로 노동하는 사람을 조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카카오드라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앱 기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카카오의 서비스는 노동을 이전과는 다르게 감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간 만난 '진상 손님'에 대해 듣고 싶어 한다. 술에 취한 사람과 좁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나는 정중하고 다정했던 이들을 먼저 떠올린다. 그들이 더욱 기억에 남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손님들은 상식적이고 따뜻하다. "기사님의 차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운전해주세요"라고 했던 경찰 공무원을, "나 대리기사님 '오셨'으니까 곧 갈게" 하고 부모님께 전화하던 젊은 여성을, 차키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해주고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90도로 인사하던 대학생,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라면서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가 따뜻한 커피를 쥐어주던 회사를, 나는 모두 기억한다.

그리고 보면 대학에서 나온 나에게 조건 없는 후의를 베풀어준 분들이 많았다. 글을 쓸 공간을 내어주거나, 괜히 찾아와 밥을 사주고 가거나, 내 책이 나오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주거나 하는 분들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조금은 여유를 찾고 그분들께 "저에게 왜 잘해주신 건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나는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뿐이에요" 하고 답했다. 서로 별다른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닌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그렇게 반응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한마디를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우리는 그것으로 서로를 지탱한다. 마치 대리운전 콜을 잡고 여러 사람과 만나 이동하는 것처럼, 모두는 느슨하지만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카카오는 여러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이 그 연결을 감각할 수 있게 돕는다. 한 플랫폼 회사가 확산시키는 긍정적 연대에 대해, 무엇보다도 '나'라는 개인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보낸다. 계속 사람과의 연결을 고민하는 카카오로 곁에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 글을 읽는 당신 역시 '잘' 되었으면 한다. ■



김민섭 작가의 글을
읽어보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김민섭 작가의 책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출판: 은행나무
발행: 2015년 11월 6일

김 작가의 첫 책. 2014년 9월부터 309동1201호라는 필명으로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와 인터넷 언론 '슬로우뉴스'에 필명으로 연재했던 글을 엮었다. 대학 시간강사, 특히 지방대 시간강사로 일하며 느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내부 고발을 담은 이 책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대리사회
출판: 와이즈베리
발행: 2016년 11월 28일

김 작가가 대학을 그만두고 나와 쓴 책. 대리운전을 하며 느낀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그는 이 사회를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에 빚대어, 타인의 운전석에 앉아 누군가의 욕망을 대리하며 가짜 주인으로 살아가기 쉬운 구조적 부조리를 직시하고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튼, 망원동
출판: 제철소
발행: 2017년 9월 25일

김 작가가 처음으로 내놓은 에세이집. 그는 망원동과 성산동, 상암동의 경계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는 김 작가의 기억 속 평범한 동네가 산업화와 현대화를 거치는 모습을 특유의 담백한 문장으로 그려냈다.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꾼

쓰나미가 휩쓸고 간 2063년 부산. '유사 곶탕'을 만드는 가게의 주방 보조 '우환'은 진짜 곶탕을 배워오라는 주방장의 말에 2019년으로 돌아간다. 목숨 건 시간여행에서 살아남은 우환과 사람을 죽이러 왔다는 소년이 등장하는 김영탁 감독의 첫 소설. 서점이 아닌 카카오페이지에서 먼저 독자들을 만난 이 이야기가 무한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야기꾼의 사부곡(思父曲)

누군가를 곁에 붙잡아두고 오랫동안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에는 영 재주가 없는 수줍은 소년은 자연스레 익명의 '청자'를 위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수필도, 소설도 아닌 글을 썼던 소년 김영탁이 어른이 되어 시나리오 작가가 됐고, 영화 감독이 됐다. 그런 그가 나이 마흔이 되던 2015년 한 편의 소설을 완성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뒤 3일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세운 소설, 세 달 만에 41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며 최단 기간에 문학 분야 랭킹 1위에 오른 소설, <곶탕>.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는 김 감독의 마음에서 우러난 글이었다. 김 감독이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그의 첫 소설도 평범한 일상의 어느 순간을 비집고 시작되었다.

"2011년 추석 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지났을 때네요. 어느날 아내와 아내 친구와 함께 곶탕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났죠. 그래서 시간여행이 가능해지면 아버지 생전으로 돌아가 곶탕을 드시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곶탕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김 감독에게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은 비현실적일 만큼 황망했다. 아버지 대신 돌연 가장이 되었고, 그 낮은 책임감을 끌어안느라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지 못했던 까닭일까. 억눌렀던 상실감이 뒤늦게 밥상 앞에서 터져나왔다.

김 감독의 마음처럼 목직해지려는 분위기를 전환한 건 친구였다. "친구가 너무 재밌다면서 영화 소재로 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솔깃해서 바로 작업방으로 달려가 마구 메모를 했어요. 그게 <곶탕>의 탄생이었죠. 시간여행이 가능한 때에, 과거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이야기."



김영탁
 처음 각본과 연출을 도맡은 <헬로우 고스트>로 2011년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 스위스 뉴사텔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최우수 아시아영화상 등 굵직한 트로피를 거머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 카카오페이지에 첫 소설 <곶탕: 미래에서 온 살인자>를 연재하며 '소설가'라는 직업까지 겸하게 됐다.

스리랑카에서 부산을 써내려가다

김 감독은 여행을 좋아한다. <곰탕>의 초고를 타고 한 것도 2014년 말 떠난 여행지에 서였다. “마흔을 앞두고 남인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보통은 여행만 떠나도 몽친 어깨가 절로 풀어지는데, 남인도를 거의 다 돌았을 때까지도 마음이 무겁고, 싱숭생숭한 것이, 제 자신이 못마땅 했습니다.”

그러다 일정이 끝나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이르렀을 때 김 감독은 계획을 바꿨다. 써야 할 것은 시나리오가 아닌 소설, 메모로만 남아있던 <곰탕>이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멀지만 바다 전망이 있는, 저렴한 호텔을 찾아 한 달치 방세를 냈다. 그러고는 방에 틀어박혀 눈을 뜰 때부터 자기 전까지, 끼니만 매우며 치열하게 써내려갔다. 출국하는 당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 정확히 40일이었다.

“돌이켜보니 흐뭇하기도 하고, 그 때 뭐가 힘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매일 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평생의 스승을 잃어버린 아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실존의 질문이자 답이며,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김 감독은 <곰탕> 속 캐릭터들에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나눠 담겨있다고 했다. “제 모든 감정을 한 인물한테 몰아넣으면, 그 인물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각 인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풀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감정은 우환이가, 또 어떤 것은 순희가, 종인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저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운명이 확신이 될 때

〈곰탕〉의 초고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도 있었지만 김 감독은 내키지 않았다. 귀국한 뒤 영화 작업이 바빠 퇴고를 할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기도 했다. 그러던 김 감독은 심리적인 슬럼프를 겪으며 두문불출하던 지난해 5월, 카카오페이지를 만났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지만, 분명 ‘운명’ 같은 게 있었어요. 출판사를 차렸다는 지인이 책 내고 싶은 거 없냐며 연락을 해와서 모처럼 만났죠. 〈곰탕〉 얘기를 하니까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카카오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 거라곤 카카오톡밖에 없던 김 감독은 덜컥 황현수 카카오페이지 사업총괄 부사장까지 만났다. 일사천리였다. “첫 소설,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어쩐지 ‘에라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는 플랫폼인데도 카카오페이지가 젊고 정직하며 편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운명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담당자들의 에너지가 참 좋았어요. 과정이 한결같이 순탄하고 깔끔했습니다.”

결과도 거기에 부응했다. 국내 주요 웹소설 연재 플랫폼에서는 SF(Science Fiction·공상과학) 소재를 활용한 소설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연재처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간혹 연재되더라도 대중적인 관심을 얻기가 쉽지 않다. 〈마션〉처럼 소재의 다양성을 갖춘 작품이 웹을 통해 대중에게 인정받고 출판과 영상화로까지 이어지는 해외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의 시간여행이라는 설정에, 고아인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부모를 만나는 드라마와, 극적인 긴박함을 더하는 범죄 코드까지 결들인 〈곰탕〉은 독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무료 독자에서 유료 독자로 전환된 비율이 인기리에 연재되는 장르 소설에 비할 만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김 감독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제가 글을 쓸 당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해받는 독자의 댓글을 발견할

때 너무 몽클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로 소통하고,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이어서요. 자기 어머니와 얽힌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받았다는 독자도 있었어요.”

손바닥 위, 콘텐츠의 바다에서 되찾은 문학의 힘

김 감독은 카카오페이지가 창작자에게도 즐거운 자극이라고 말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차근차근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웹소설, 웹툰,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제 영화까지 모든 걸 손안에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플랫폼은 유일무이하잖아요.” 카카오페이지의 콘텐츠 생태계는 창작자에게 스스로의 이야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카카오페이지에서 나의 이야기가 어느 영역쯤에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웹소설에 맞게 써야겠다, 순수문학을 해야겠다, 방향을 정하는 창작자들이 많을 겁니다. 독자들의 정서와 취향을 확인하고 공감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김 감독은 카카오페이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양한 콘텐츠가 한데 모여 있는 환경이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편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결국엔 연령이 다른 독자 간 취향의 격차까지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웹툰의 영화화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조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웹툰인데, 그 친구는 열광하는 거예요. 웹툰을 보는 세대, 순수문학을 보는 세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카카오페이지에서는 웹툰 보던 10대가 다른 탭을 둘러보다가 소설을 읽을 수도 있고, 영화나 실용서적을 보는 40대가 웹툰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카카오페이지는 창작자들이 1차 저작물을 다양한 형태로 변주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김 감독은 이 점을 눈여겨보는 중이다. “이 콘텐츠는 소설, 저건 웹툰, 이렇게 제한을 두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확장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지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다양하게 고민해주시고 제안해주시거든요. 이야기가 외연을 넓히면서 발전하는 걸 보는 건 독자뿐 아니라 작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지요.”

다시 종이로, 또 다른 화면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무대로 독자를 만났던 <곰탕>도 변신 준비에 한창이다. 우선 3월 말 <곰탕>이 종이책으로 거듭나 오프라인 독자들에게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지가 마련해준 독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곰탕> 연재분 일부를 편집해서 만든 가제본을 만져봤는데, 연재를 시작할때와는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출판은 시작일 뿐이다. 김 감독은 카카오페이지와 함께 <곰탕>을 웹툰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논의 중이다.

본업인 영화 쪽으로 욕심을 낼 법도 한데, 김 감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영화감독이긴 하지만 <곰탕>은 드라마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캐릭터들의 비중을 줄이고 싶지 않고, 오히려 급하게 쓰느라 못다 한 이야기들, 캐릭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충분히 풀어내보고 싶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만들었다는 소설 속 인물들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이 드러나는 다짐이다. “드라마 이후 대중의 또 다른 기대와 반응으로 영화를 만들게 된다면, 조금은 다른 이야기로 풀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숨



겨진 이야기가 깊은 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식으로요.”

김 감독에게 남은 고민은 ‘부끄러움’에 대한 것이다. <곰탕>을 세상에 내놓을 때 도 겪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창작자의 숙명 같은 감정,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가.’ ‘<헬로우 고스트>는 시나리오 반응이 좋아서 투자를 받고 감독이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천재 줄 알았죠. 그런데 가편집을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엄청 부끄러웠죠. 그런데 한 번 부끄러워보고 나니까 배우는 게 있고,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 봐야 성장도 있구나. 이번에도 호되게 부끄럽겠지만, 그런 후에는 다음 소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 감독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형태의 이야기로 지지하고 싶은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곰탕>에서 역동적인 충위를 전부 드러내면 남는 본질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아버지를 만나러 떠난다는 단순한 이야기다. “저는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루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면 그게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거든요. 제 독자와 관객들은 제 이야기를 보고 나서 내일도 더 버텨봐야지 하고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카카오페이지
 <곰탕> 3회분 무료 이용권

[감독판소설곰탕]

(선착순 3,000명 / 2018년 4월 30일까지 등록 가능)

- 1. 카카오페이지 앱 설치 (구글플레이/앱스토어)
 - 2. 첫 화면 > 좌측 상단 메뉴 > '이벤트/쿠폰' 선택
 - 3. 이용권 텍스트 입력 후 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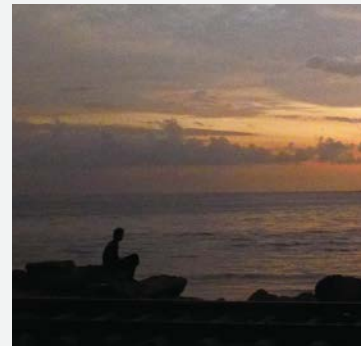
작가의 비밀 병기

만능 이야기꾼인 김영탁 감독의 글쓰기에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 노트북도, 펜도, 노트도 아닌 스타워즈 캐릭터 USB 세 개와, 이를 노트북에 이어주는 무표정한 어댑터, 그리고 카메라다. 김 감독이 직접 비밀 병기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한 몸이 된 친구들

노는 건 좋아하는데, 거의 혼자서 작업해야 하는 제게는 ‘애들’이 친구가 돼줍니다. 이 친구들한테 이름까진 따로 없어요. 5년 전인가 친한 피디님이 사주셨죠. 노트북을 켜고 어댑터를 연결하면 여기 세 명이 동시에 매달리기도 하구요. 종종 이 친구들이랑 역할 놀이도 합니다. “오늘은 누가 집에 있을까? 저번에 누가 나갔니?” 하나는 늘 몸에 지니고,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가방 속에 두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나의 작업을 잃지 않겠다는 제 다짐이 담긴, 먹고사는 도구이기도 한 셈이죠. 이 무표정한 어댑터는 작업이 잘될 때는 웃는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될 때는 찡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저를 긴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사진에서 우러나는 글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촬영 당시의 마음이 되살아나니까 그때 감정을 확인하거나 돌이켜봐야 할 때 유용하죠. 특히 일상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요. <곰탕>을 쓸 때도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콜롬보에서 글을 쓰던 어느 날 햄버거를 사러 나갔는데 해변에 한 소년이 새 마냥 앉아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요. 혼자 노을이 떨어지는 걸 보는 그 소년이 몹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환의 어린 시절이 저렇지 않았을까, 싶었지요.

숫, 카카오의 비결을 파트너께만 알려드려요

2018년 2월의 첫날, 카카오 판교오피스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카카오와 협업하는 27개 업체를 대표해 찾아온 40명의 파트너.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는 카카오 서비스와 플랫폼 활용법을 예비 창업자,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과 공유하는 Kakao 클래스의 특별 세션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카카오의 인재 영입 노하우.' 박원철 카카오 People Innovation Lab 팀장이 연단에서 파트너들을 만났다. "단순한 채용 스킬보다는 카카오가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이 반영된 카카오의 문화, 그리고 이를 모두 고려한 인재상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 팀장은 인재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은 회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지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 "카카오에겐 사용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저(user)들이 어떤 걸 원할까, 어떻게 유저의 가치를 제고할까를 생각하는 게 저희 같은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화두니까요. 이런 점에서 카카오에 필요한 사람은 이용자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박 팀장은 질의 응답 시간을 포함해 1시간 조금 넘게 이어진 강연의 끝을 정현종의 시 '방문객'의 한 구절로 장식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정선 한스컴퍼니 이사는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카카오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라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우선 저희 같은 파트너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개방한 상태에서 노하우를 나눠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박춘 마루미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더라고요. 파트너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요." 이종인 엠토스솔루션스 부장도 강연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큰 회사의 인재 채용 전략을 상세히 들여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이사는 특히 협업을 중시하는 카카오의 철학이 인상 깊었다고 한다. "강연 내용 가운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마침 인력을 충원하는 중이라서요." 특히 조직 관리를 위해 힘쓰는 카카오의 모습에 공감했다. "작은 회사는 한 명이라도 직원과 틀어지면 경영이 힘들어요. 협업은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 대표는 카카오가 '채용'이란 단어 대신 '인재 영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이 색다르다고 전했다. "인재 영입이라는 개념이 신선했고, 채용 전 과정이 투명하게, 개방적으로 이뤄지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면접관들과 함께 과제를 풀어가면서 문제 해결력을 판단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돋보였습니다."

이 부장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카카오의 개발자 공개 채용 방식이 흥미로웠다고 한다.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와 달리 재미를 가미한 대회 형식의 코딩 테스트로 개발자를 선발한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희야 카카오보다 규모가 작아서 오늘 들은 내용을 실제로 전부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이런 방식의 개발자 채용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카오는 마케팅, 영업 등 파트너가 전수받기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Kakao 클래스 with Partners를 통해 앞으로도 자주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다. ▣

난 카카오톡으로 우리 손주랑 얘기해

까막눈 할머니, 폰트를 만들다

손바느질에 담긴 마음을 아기에게

플친, 맞춤 행정으로 가는 길

카카오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연결의 온기, 나눔에서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의의 힘, 돕는 일에 앞다퉈 나서는 열정이 모두가 조금씩 더 행복하고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with
kakao

모두를 위한 연결, 두 번째: 카카오톡 X 같이가치 with Kakao

난 카카오톡으로 우리 손주랑 얘기해



이재준

금융맨으로 살다 은퇴 후 본격적으로 음악을 즐기는 일흔일곱 노인사. 연주 동영상을 보고 연습하거나 카톡으로 공유하는 걸 즐긴다.

원복희

올해로 여든셋, 아들 넷을 키우며 분주하게 지내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6년째. 지인들과 카톡으로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게 큰 재미다.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세상은 큰 폭으로,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변화에 발맞추는 일은 모두에게 도전이지만, 노인들에게는 그 도전의 난이도가 유독 높다. 카카오는 노인들이 더 쉽게 변화에 적응하고, 사람 그리고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다.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모은 후원금으로 만든 교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어르신들이 '모두를 위한 연결' 시리즈 두 번째 주인공이다. 그들을 경기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났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터줏대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재준 어느덧 10년째 이 복지관에 다니고 있네요. 경기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금융회사를 다니다 은퇴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하나 딸 둘을 뒀는데 모두 출가해서 따로 살고, 지금은 아내와 둘이 삽니다.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마실 다니게 된 건 저희 형님 덕분이예요. 의정부 소홀음 읍장으로 계시다 정년 퇴임하고 쪽 여기 사셨거든요. 같이 취미생활을 하자고 하시기에 따라 나온 게 벌써 10년도 더 됐네요.

원복희 나는 서울 토박이예요. 이사 온 지는 10년 됐지만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한 건 5년 전이니까 이재준 할아버지보다는 후배네요. 속 안 썩이고 장학생으로 잘 커준 아들 넷은 장가를 보냈고, 남편이랑 둘이 살면서 집에서 살림했는데 6년 전에 그 사람 먼저 떠나보내면서 혼자 됐어요. 심심해서 복지관에 나와 취미생활을 시작했지요.

복지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이재준 음악이 제일가는 취미이긴 한데, 여기 와서는 서예와 포켓볼, 당구, 이런 것을 주로 했네요.

원복희 나도 서예를 했어요. 문예반도 하고, 노래교실에도 참가하고요. 여기 와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참 좋아요. 배우는 것도 많고.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평소 복지관 다니는 것 말고 즐겨 하시는 일이 있나요?

원복희 그냥 뭐 복지관에 버스 타고 나오는 게 일이지. 웬만하면 걸어다니겠는데 힘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사흘도 오고 나흘도 와요. 그거 말고는 절에 다니고요. 초하루, 절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다녀요. 남편이랑 둘이있을 땐 운동도 다니고 그랬는데 혼자 있으니까 좀 그래서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재준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두 늙은이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 우리는 오히려 각자 생활이 좀 달라요. 난 그냥 여기 나와서 컴퓨터 배우고 당구 좀 치고 놀다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운동도 하고. 오히려 간섭이 적어졌어요. 복지관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작 게임을 합니다. 제가 그걸 좀 하거든요.

가장 특별했던 복지관 활동 중 하나가

이지(易知) 스마트폰 교실이었다고 들었어요.

이재준 맞아요.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와서 스마트폰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나는 3년 전에도 한 번 듣고 작년에도 한 번 들었지. 와이파이랑 데이터 쓰는 법부터 카카오톡 쓰는 방법, SNS 쓰는 법,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법까지 두루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다 배워봤지만 그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카톡이예요.

원복희 나도 그래 나도.

왜 카톡이 제일 생각나세요?

원복희 카톡 온 것을 쪽 보고 있으면 거기에 친구도 많잖아요. 사실 복지관에 나오지 않으면 말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카톡이 너무 좋죠. 가깝게 지내던 막넛동서가 미국 간 지 30년이 넘었는데 동서하고 매일 아침 카톡을 해요. 나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아침마다 안부를 전하고, 엿그제는 애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갔다 온 거 사진을 쪽 보냈어요. 서로 그렇게 지내니까 먼 데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느껴져서 참 좋아요. 친구들과이랑 그룹채팅방도 만들어서 서로 카톡 주고받는 걸 보고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돈 주고 사오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글썩. 카톡을 돈 주고 샀냐고 하는 거야.

이재준 나는 카톡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처럼 게임이나 오락 정보는 아니고 생활 정보랑 건강 정보를 주로 보죠. 정보를 딱 보자마자 친구들한테 바로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편해요. 생활의 지혜나 좋은 구절을 나누기도 하고요.

원복희 그렇지, 건강 정보가 제일이예요. 무슨 김치는 어디에 좋고,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 이 카톡방에서 받아서 저 방에도 주고 그래요.

카톡 덕분에 적적함이 한결 나아지셨겠어요.

기능은 어디까지 활용해보셨어요?

이재준 프로필 사진이랑 상태 메시지 쓰고, 채팅창 이름 정하고, 사진이랑 동영상, 이모티콘 보내는 거, 다 해봤죠. 프로필은 우리 집 사진이고, 상태명은 '제행무상'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멀하고 형체가 있는 것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불가 말씀이지요.



원복희 다 써보긴 했어요. 더듬거려서 그렇지.

이재준 채팅방 검색 기능도 써보고, 나와의 채팅으로 메모도 남겨봤어요. 한 번만 더 배우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쓰고 있어요. 쓸수록 뜻에 맞춰서 이모티콘 보내고 이런 것 좀 잘하게 더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카톡이 문자, 전화보다 편리한 점 혹은 재미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재준 전에는 카톡이 공짜인 걸 몰라서 문자메시지만 주구장창 보냈는데 카톡이 돈이 안 든다는 걸 알고 참 바보 같았구나 싶었어요. 전화보다 나아요. 카톡으로 보이소톡을 걸 수 있으니깐요. 어떤 친구랑은 보이소톡으로만 연락해요. 그리고 나는 학교 다닐 때 관악기 밴드를 하면서 색소폰이랑 클라리넷을 불었거든요. 내가 연주하는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어 신기하더라고요. 영상도 카톡으로 보낼 줄 알아요 이제.

원복희 글씨 쓴 거, 그림 그린 거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재밌어요. 그냥 휴대폰만 갖고 있었을 때는 못 했던 거니까요. 잠이 안 올 때도 나는 카톡을 해요. 복지관이나 절에서 만난 동생들이랑. 다음번에 할 때는 자기도 같이 배우게 해달라고 친구들이 아주 성화예요. 일러주고 싶더라고.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요?

이재준 처음 접하는 건 다 어렵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배웠어도 집에서 하려면 더듬더듬 안 되더라고요. 카톡 처음 배울 때 메시지를 보내봐야겠다 하고 친구들한테 보냈는데 헛갈려서 다른 사람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실수로. 창피해서 혼났네. 참 그렇게 자주 실수를 해요.

원복희 그건 늙어서 그런 건데 할 수 없지요. 젊을 땐 총기가 있어서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늙으면 돌아서면 까먹어. 그래서 열 번 배워야 돼요. 기획만 있으면 배우려고 해요 나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사진을 25장 묶음으로 해서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해봐야겠다 싶어서 배워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교재가 없어서 복습하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복희 가뜰이나 어려운데 힘들었지요. 낱장으로 공부한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는데 거기 열심히 받아 적고 집에 가서 보면서 연습했어요. 혼자 있으니 물어볼 데도 없어서 필기를 보는 수밖에요. 그 필기를 아직도 안 버리고 집에 뒀어요.

이재준 나도 노트에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했어요. 교재가 없어서 예습도 어렵고 복습도 어렵고 그랬죠. 그러다

같이가치 with Kakao,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쉽게 알려드려요!’

프로젝트 팀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장바구니
모금 기간	2017.7.26 ~ 2017.9.4
사업 기간	2017.9.10 ~ 2017.11.30
모금액	203만8800원
직접 기부	36만9000원
응원 기부금 (카카오)	50만원
모금액 사용처	203만원 (교재 제작비 1만원X191권)+(스마트폰 터치펜 12만원)

같이가치에서 후원금으로 스마트폰 교재를 만들어줘서 잘 쓰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 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참고서야 아주.

교재를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재준 국민학교 1학년 때 처음 책 받는 기분이야. 뭐 이리 많이 실렸나 하고 한참 들여다봤는데 별난 게 다 있더라고. 참 좋았어요.

원복희 진짜 학교에서 교과서 처음 받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원복희 손주들은 신기해해요. 지들한테 안 물어보고 척척 하니깐 손주들이 “할머니 카톡도 할 줄 아네!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고 놀리면서 자기들 사진 보내주고. 자주 못 보는 손주들 사진 보니 좋더라고요.

이재준 대한영이지 뭐. 좋은 거 많이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손주들이랑 일주일에 두 번씩 카톡으로 소식을 서로 전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어떨 때 깜빡 잊고 안 하면 야단을 치더라고요. “할아버지 약속 안지켰으니까 벌금 내!” 하고요.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배워요. 받은 교재 순서대로요. 메시지 보내고 사진 보내고 저장하는 것쯤은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할 줄 알아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게 되면서 생긴 일화를 들려주세요.

원복희 나는 그렇게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이걸 잘했을까 자꾸 생각이 나요. 할아버지가 아주 컴퓨터 박사여서 시내 나가서 자격증도 다 따오고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지. 돌아가신 뒤에 컴퓨터 꼴 보기

싫어서 싹 갖다 버렸더니만 스마트폰 배우고 나니 와이파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주 답답해.

이재준 어이쿠, 그러면 공유기를 사셔야죠.

원복희 에이 몇 년을 산다고. (나이가) 70대만 돼도 사겠는데, 싹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전에도 휴대폰은 사용해보셨죠?

원복희 1998년에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만 빼고 다들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고. 그걸 보고는 애들이 폴더를 위아래로 여는 은색 휴대폰을 사줬어요. 그 다음에 한 번 검정색으로 바뀌서 썼는데, 이번엔 또 초등학교 애들까지 스마트폰을 다 쓰더라고요. 또 나만 없어. 나는 뭔가 새로 나왔다 하면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팔순 잔치 때 스마트폰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냥 내가 가서 사버렸어요. 처음에는 용어를 하나도 모르잖아. 요새 사람하고 우리는 대화가 안 되는데 대리점에서 친절하게 해줘서 다행히 개통을 했지요.

이재준 휴대폰은 뚜껑을 열어서 쓰는 까만색 기계로 20년 전에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통화하는 것밖에 안 됐죠. 그래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전화라니 세상 참 편리하다 싶었지요. 스마트폰은 안 쓰다가 너무 뒤쳐지는 기분이 들어서 10년 전에 큰딸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게 어르신들께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재준 6·25전쟁이 날 적에 국민학교 3학년이었어요. 보따리 이고 피난 다니고. 그 뒤에 이렇게 격변하는 사회를 보고, 스마트폰 같은 걸 보고 있으니 앞으로 또 얼마나 변할까 기대가 돼요. 다 못 보고 죽을 게 한스러워.

원복희 억울하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변화' 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방되던 때가 생각나고, TV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 듣고 살았던 때가 다 생각이 나. TV 한 대만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그랬던 좋은 기억도 나고요.

세상이 크게 변할 때마다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원복희 머리가 깨어야 해요.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들어 배우는 데 예전보다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이재준 제 생애 모토는 남이 한 발 걸으면 나도 한 발 전진하면서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그랬지.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빠르고. 변화는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계속 전진하는 걸 목표로 살아야 하는 거라고 믿어요. ▣



이 스마트폰 교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카카오톡 덕분에
어르신들이 신났어요**



김선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스마트폰 교육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과목입니다. 2015년부터 대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폰 교육을 기획해 진행했어요. 이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곤 했는데 지금은 따로 질문하는 어르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이 강좌는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의 인기 강좌입니다. 지난해 말 5회기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단톡방을 활용해 일정을 공유하고, 본인의 작품을 사진 찍어 자주 공유하셨어요.

전 세대에 걸쳐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카톡, SNS 등을 활용해서요. 특히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가족들과도 쉽게 카톡, 보이스톡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어르신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요. 어르신들이 전화를 할 때보다 카톡을 하니깐 더 자주 자녀들이랑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 좋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신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를 배우고 싶은 것은 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새로운 것들을 눈여겨보고 구매해 사용해보기도 하면서 어르신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신기술이 쏟아져 나올 텐데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겠죠. 올해도 3월부터 7월까지 9회차 교육을 진행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조수빈
대진대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장바구니' 회장

'장바구니'는 2015년에 창립했어요. 설립 당시 동아리 회장이 방학 때 복지 기관에 실습을 나갔는데 실습 프로그램 중 하나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이었습니다. 실습을 해보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 학과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어르신들도 주변 사람들이 전부 스마트폰을 쓰니까 스마트폰으로 바꾸긴 했는데, 사용법이 이전과 다소 달라 어떻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주고받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소화하면서 인터넷 망을 통해 무료로 쓸 수 있는 카카오톡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한 어르신들이 카톡 활용법을 가장 알고 싶어 하시기도 했고요. 그 이유를 여쭙보니 무료로 연락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육이 진행된 지 어언 4년이 되어가고 더 사용이 어려운 앱 활용법도 가르쳐드리고 있지만, 카톡 교육만은 매 회기 빼놓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도 수요가 있고, 카톡도 자체적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예전보다 더 편한 삶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으니까요. 점차 카카오톡의 다른 서비스들도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이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까막눈 할머니, 폰트를 만들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으로 가득한 3월, 조금 특별한 학생들이 모인 두 학교도 개학을 했다. '소망초등학교'와 '한글늘품교실'. 여자라서, 형편이 어려워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다. 평균 나이 74세의 '소녀'들이 이 학교에서 같이 가치 with Kakao 모금을 통해 한글을 처음 배웠고, 이들의 손글씨는 전 국민이 쓰는 폰트가 되어 다시 한글 교육을 도왔다.

삐뚤삐뚤 만학도의 글씨로 써낸 또 다른 기적

-두 학교 이야기-

지난해 여름, 같이가치 with Kakao 10주년을 맞아 어떤 이벤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담당 크루들의 눈에 특별한 두 학교 이름이 들어왔다. 부산 금정구중합사회복지관이 10년 넘게 운영해온 '한글늘품교실'과 서울 마포 노인복지센터 주도로 서울 소의초등학교 교실에서 2013년 문을 연 '소망초등학교'. 두 곳 모두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실이다. 매년 여러 기업이나 각종 후원에 의존해 운영해왔기 때문에 재정이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이가치를 만났다.

한글늘품교실은 2015년 연말 낮은 책걸상을 새 책상과 의자로 바꾸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같이가치에 모금함을 개설했다. 소망초등학교는 지난해 5월 할머니들의 생애 첫 수학여행 비용을 모으기 위한 모금함을 열었다. 두 모금함에 각각 78만8440원, 581만원이 모였다. 늦깎이 학생이 된 할머니들의 열정이 1만1085명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같이가치는 나눔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10주년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 두 학교에서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폰트를 제작해 배포하고, 그 폰트로 10주년 축하 댓글을 적으면 아이디별 첫 댓글 하나에 카카오가 1000원씩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은 같이가치에 모금함을 열어 '한글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 12곳을 돕는 데 쓰였다.

한글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서상을 바꾸는 변화를 위해 늘 애쓰시는 같이가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글씨로 폰트를 만든다는 생각도 같이가지다운 아이디어네요!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 닉네임 '꽃순이'

2017년 11월 16일

♡ 좋아요 1008



이 서비스가 벌써 10주년이라는 걸 알고 일찍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학생인 저도 힘들면 투정부리고 하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열의를 갖고 공부하시니 저도 배워갑니다.
-닉네임 '하구리'

2017년 11월 16일

♡ 좋아요 736



같이가치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하는 응원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 메신저의 파급력으로 온경 어린 손길까지 전해주는 카카오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고운 손으로 써 주신 예쁜 폰트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닉네임 '박하'

2017년 11월 16일

♡ 좋아요 506

-서툰 글씨가 폰트가 되기까지-

우선 두 한글교실에서 모인 다양한 글씨체 중 개성 있는 네 종류의 폰트를 골라냈다. 소망초등학교 김유식, 신태연 할머니와 한글늘품교실 권정애, 김중자 할머니 글씨였다. 네 명의 만학도에게는 한글을 넘어 영어 알파벳까지 배우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할머니들은 몇 달간 피나는 노력 끝에 꼬불거리는 글씨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고, 마침내 한글과 영어 알파벳 모두 완벽하게 써내는 데 성공했다. 평균 나이 74세, 스마트 기기를 제대로 다룰 줄도 모르는 할머니들의 수줍은 손글씨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되는 순간이었다.

폰트는 각 할머니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같이가치 10주년 페이지에서 배포했다. 이벤트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힌 9만8367개의 댓글은 기부금 8854만7000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이 이벤트는 늦깎이 학생들이 한글 교육을 통해 만들어낸 폰트로 또 다른 사람들의 한글 교육에 큰 힘을 보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배움, 그 끝없는 여정-

폰트를 만든 할머니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남았다. 한글늘품교실 할머니들은 최근 과감한 도전을 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직접 쓴 시와 그림으로 만든 시화들을 모아 부산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시화전을 연 것이다. 할머니들은 시화전을 통해 그동안 느낀 배움의 기쁨과 뿌듯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

폰트 주인공들의 한마디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옛날에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못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내 이름 적자, 내 손으로 직접 쓸 수 있을 때 한글 잘 배웠구나 생각이 들어요."

78세 김유식 할머니 (소망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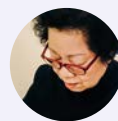
"내 이름 쓸 줄 알게 돼서 좋고, 어디 가서도 조금 머뭇머뭇하지만 읽을 수 있게 돼서 좋고. 내 글씨로 된 편지, 딸한테 보여주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한글 공부 할게요."

80세 신태연 할머니 (소망초등학교)



"한글 공부하면서 좋은 언니들, 친구들, 선생님을 만났어요. 예쁜 글씨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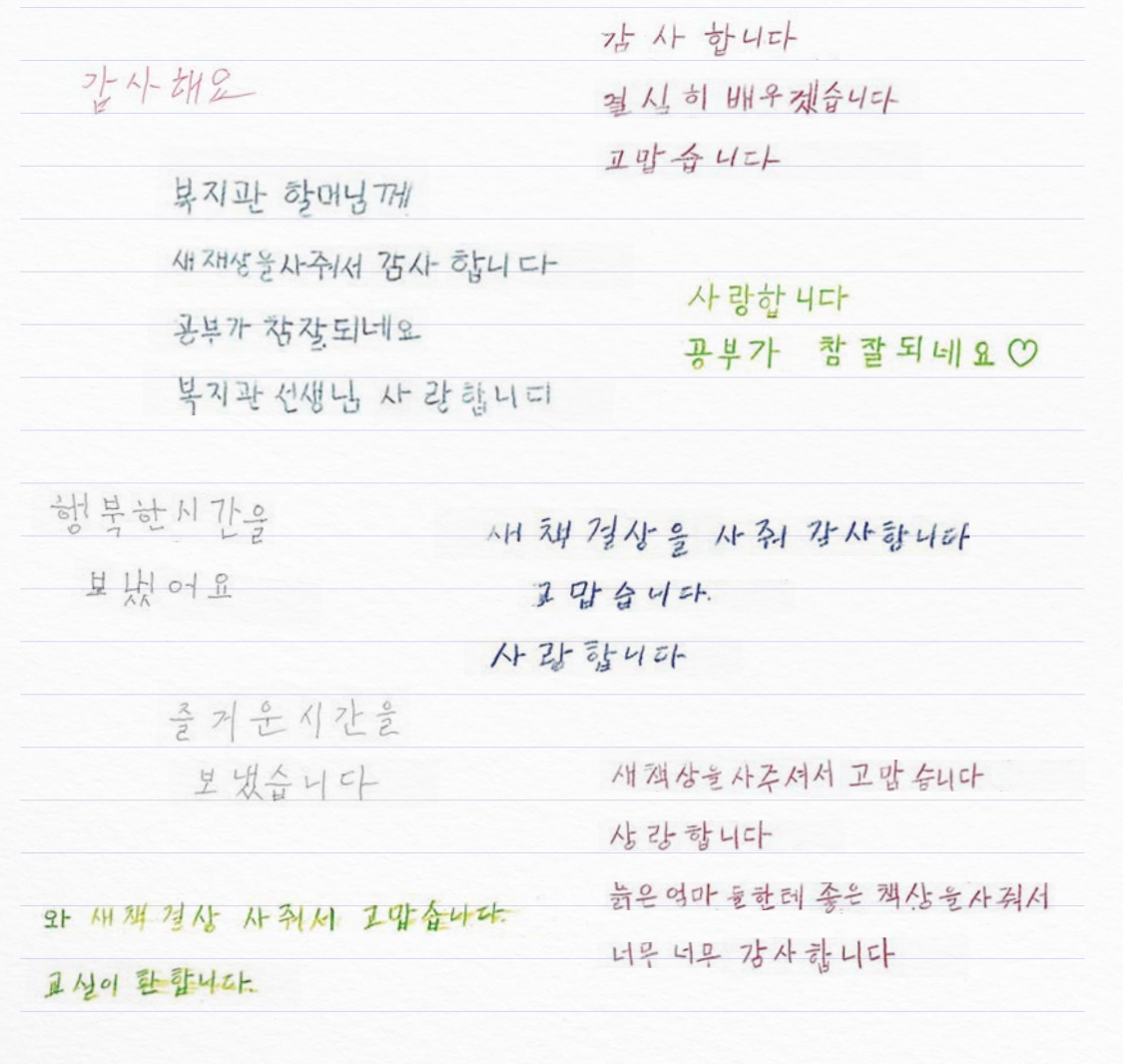
71세 권정애 할머니 (한글늘품교실)



"이전 한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도 버스 잘 탈 수 있고, 새 집으로 이사간 손녀딸도 보러 갈 수 있어서 좋아요."

78세 김중자 할머니 (한글늘품교실)

공부가 좋은 할머니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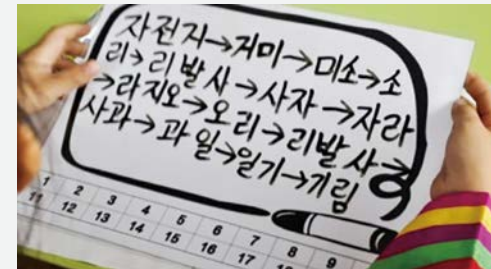
소망초등학교 할머니들은 내년 졸업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6학년 학교생활과 생애 첫 졸업식을 준비하는 데 같이가치의 모금함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중이다. 소망초등학교의 두 번째 모금함은 목표액 600만원을 달성하며 성공리에 종료됐다. 덕분에 내년 겨울에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의 졸업사진을 볼 수 있게 됐다.

같이가치 10주년 폰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는 폰트를 내달라', '할머니들의 노력이 담긴 이 폰트를 PC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많은 유저들과 폰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어르신들의 폰트를 카카오톡 폰트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iOS 이용자들은 3월 중순부터 카카오톡에서 권정애체, 김유식체, 김중자체, 신태연체를 사용할 수 있다. ■



할머니 폰트를
다운받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한글 교육,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민들레 교실에서 올려 퍼지는 가나다라~

사단법인 샘복지회관

100% 4,000,000원



고려인 아이들의 꿈이 되어줄 한국어 교실

사단법인 프렌드아시아

100% 6,000,500원

모두의 하나 된 소원으로 모인 한글 교육 기부금이 전해진 곳은 총 12군데로 대부분 '한글놀이교실'과 '소망초등학교'처럼 나이 지긋한 노인들의 배움터이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교실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모금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문맹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육 관련 기관 9곳을 지원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모금함. 학구열이 그 어느 곳보다 높은 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중장년층 실질 문맹률은 OECD 1위라는 점과, 국내 거주 다문화 학생들 수만 10만900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이들의 한글 교육을 위한 모금함에 사용자들은 1755개의 댓글이 남기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모인 모금액은 3003만304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모금함은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였다. 한국에 머무는 수많은 다문화가정의 한글 교육을 위한 모금함으로, 약 850만원의 기부금이 지원됐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낯선 문화보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는다. 이들은 같이가치 기부금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같이가치와 소망초등학교, 한글놀이교실이 함께한 뜻깊은 이벤트를 통해 한글 교육을 이어가게 된 12개 모금함의 운영단체와 수혜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를 전해왔다. 같이가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나눔의 선순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손바느질에 담긴 마음을 아기에게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1월 24일, 카카오 판교오피스의 한 회의실.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7시인데 크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딸의 손을 붙잡고 온 크루도, 아내와 함께한 크루도 있었다. 크루의 정기 기부 펀드인 '다가치펀드'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무연고 아동들에게 제공할 '베이비키트 만들기'에 직접 나선 크루들이다.



사랑으로 한땀 한땀 지은 첫 선물

- 혼자가 된 갓난아기들 -

한 해 300명. '버려지다'라는 말의 뜻을 알기도 전에 버려진 '무연고 아동'의 숫자다. 장애가 있어서, 부모의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무연고 아동들은 시설과 시설을 전전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카카오는 사내 정기 기부 펀드인 '다가치펀드' 국내아동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5년부터 무연고 아동을 포함한 200여 명의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다가치펀드는 크루가 직접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희망하는 만큼 기부하고, 크루가 기부한 만큼 카카오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은 6개의 기부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국내아동지원사업은 이 중 카카오크루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프로젝트다.

어린이재단은 무연고 아동들을 위해 영유아 필수품인 턱받이, 속싸개, 모자, 딸랑이로 구성된 베이비키트를 손수 만들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참여형 캠페인 '품다'를 2016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침을 많이 흘리는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턱받이,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모자와 속싸개, 인지 발달에 도움을 주는 딸랑이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 부모의 보살핌 아래 양육을 받는 아기들에겐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개씩 준비되어 있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무연고 아동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제품이기도 하다.



- 앞다퉈 바느질에 나서다 -

이런 아기들을 위해 카카오가 '베이비키트 만들기'에 나섰다. 행사를 열흘 앞두고 사내에서 베이비키트를 만들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마음은 있지만 서툰 바느질 솜씨 때문에 망설일 크루를 위해, 바느질을 도와줄 5명의 마스터도 함께 물색했다. 참여 인원당 1만원을 기부해 직접 비용 총당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모집 공지가 나간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50명의 자원봉사자와 마스터가 모두 모였다. 혹시 불참자가 발생하면 꼭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크루까지 나타나면서 대기 접수자만 20명에 달했다.

드디어 1월 24일 저녁. 근무를 마친 크루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모였다. 초급 단계인 꼭지모자부터 중급인 턱받이, 딸랑이, '고수'에게 맡기는 속싸개까지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바느질 실력에 맞춰 만들고자 하는 품목을 하나씩 선택했다. 군대 제대 이후 바느질은 처음이라 찢찢매는 크루도, 함께 온 아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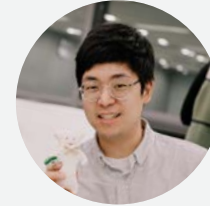
도움을 받아 무사히 완성한 크루도 있었다.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한땀 한땀에 아이들을 위한 마음을 가득 담은 특별한 선물이 크루들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완성된 베이비키트 60개는 2월 1일 어린이재단으로 보냈다. 어린이재단은 베이비키트를 깨끗하게 세탁한 뒤, 도움이 필요한 시설의 무연고 아동들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카카오크루의 온기가 가득한 베이비키트를 통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



베이비키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부부, 실과 바늘을 들다



황나라
카카오 콘텐츠검색개발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검색개발셀에서 일하는 황나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번 자원봉사에 처음 참여했어요.

이전에도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느 교회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버려지는 갓난아기들을 받아서 보살핀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무연고 아동이라고 부르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내도 무연고 아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요. 매체를 통해 베이비박스를 알게 된 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봉사하러 가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생각을 실천하는 시작이 되어 기쁘다고 하네요.

부부가 함께 자원봉사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내가 원래 아기들을 좋아합니다. 바느질과 자수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베이비박스나 아기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무연고 아동을 위한 베이비키트 만들기 봉사활동에 관한 공지를 보고 아내의 허락 없이 일단 신청했어요. 제가 평소에 공지사항을 잘 보는 편이 아니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이벤트와는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 행사는 운 좋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취향 저격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내의 회사도 카카오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퇴근하고 오기에도 용이했어요. 모든 조건이 저희 부부에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것은 처음인가요?

저희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는데 방학 계절학기 때 5박 6일 지체장애인 시설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 남자, 여자 장애인들을 맡아서 청소부터 목욕, 식사, 야외 활동, 실내 활동, 화장실 가기, 잠자기 등을 도우며 하루 종일 붙어서 생활했죠. 몸이 많이 고된 일이었지만 보람과 뿌듯함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취직, 결혼 준비 등 여러 이유 때문에 같이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봉사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비록 2시간 정도 걸리는 짧은 봉사활동이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에 소홀했던 저희 부부에게 다시금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간 잘 알지 못했던 '무연고 아동'에게 서툴지만 따뜻한 선물을 보낼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기들이지만, 건강하게 자라길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또 좋은 봉사 기회가 있다면 같이 꼭 참여하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플친, 맞춤 행정으로 가는 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좁혀준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플친)'를 통해 사람과 사업을 더욱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모여 있는 플친의 울타리 안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뿐 아니라, 이름만으로는 조금 멀게 느껴지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들도 들어와 있다. 카톡을 통해 대중 곁에서 눈높이 행정을 꾸려가는 공공 플친을 만나보자.

공공 플친 현황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플러스친구는 현재(2월 기준) 1238개, 이들은 1284만 명의 이용자와 친구를 맺고 있으며, 월 평균 300만 건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1238^개
1284^{만명}
300^{만건}

최초의 공공 플친

처음으로 플친을 개설한 곳은 국세청. 2012년 4월 3일 '국세청근로장려금' 계정을 열었다.



국세청의 국세청근로장려금 계정 생성 날짜

2012^년
4^월 3^일

늘어나는 공공 플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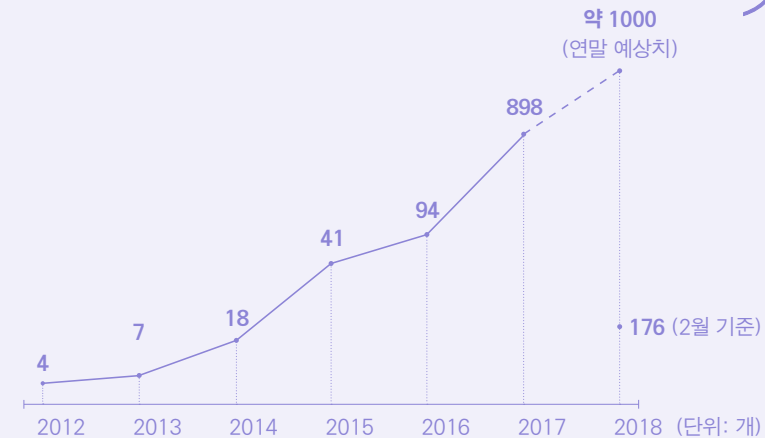
플친을 개설하는 공공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한 해에만 900개에 가까운 공공 플친 계정이 생겼고, 올해 들어 두 달간 180개에 가까운 공공 플친이 생겼다.

2017년 새로 생긴 공공 플친 계정

898^개

2018년 1, 2월에 새로 생긴 공공 플친 계정

17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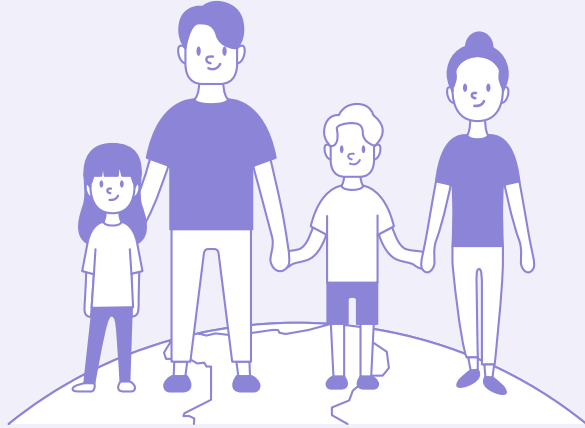
소통왕 공공 플친

메시지 발송량이 가장 많은 공공 플친은 유니세프로 지금까지 800만 통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수원시, LH, 대한적십자사, KCDC 질병관리본부가 플친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유니세프

798만여 통

기관명	발송 메시지
유니세프	798만7264통
수원시	446만6146통
LH	336만5130통
대한적십자사	176만5663통
KCDC	174만2655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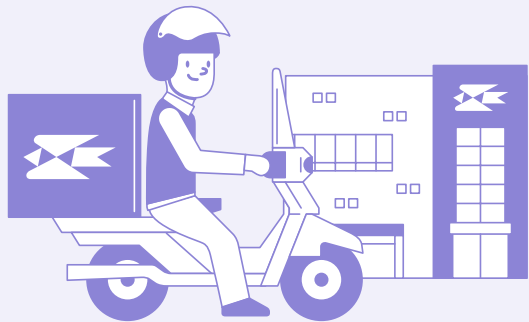
친구 부자 공공 플친

친구가 제일 많은 공공 플친은 우체국. 670만 명에 가까운 친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한국전력공사, 병무청, 국세청 근로장려금, LH다.

우체국

668만여 명

기관명	플친 수
우체국	668만5273명
한국전력공사	71만7348명
병무청	47만535명
국세청근로장려금	34만1018명
LH	33만4000명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공 플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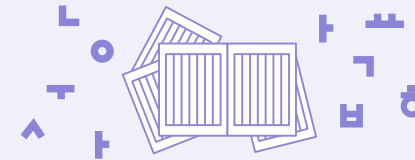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 8만3617명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스마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와, 미처 알지 못했던 일상 속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책까지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한다.



우리말365 - 14만1790명

'아니오 vs 아니요', '든지 vs 던지' 쓸 때마다 아리송한 맞춤법. 국립국어원 우리말365 플친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헷갈리는 맞춤법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소방청 - 150명

겨울철 사고, 봄철 나들이 사고, 알아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법, 응급 상황을 신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방청이 직접 알려준다.



경찰청 - 25만3128명

생활 속 여러 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해준다.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는 3대 반칙 행위(생활 반칙·교통 반칙·사이버 반칙)에 대해 알리기 위해 경찰청이 방송인 권혁수, 드라마 <도깨비> 윤종호 감독과 함께 만든 '삼깨비'도 시청할 수 있다.



KCDC 질병관리본부 6만9228명

아토피, 알레르기, 뇌졸중 등 일상 속 질병을 관리하는 생생한 노하우부터, 임신을 계획 중인 가정의 리모델링 진행 여부 같은 '깨알 상식'까지 건강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버비 - 806명

정확한 생활법을 지식을 얻으려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챗봇 '버비'를 만나보자.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부동산, 노동, 상속에 관한 법 지식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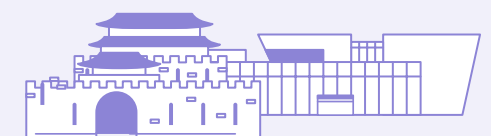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 82만8730명

88 서울 올림픽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최고의 스포츠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 국민의 관심 속에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친구를 모았다. 뜨거운 현장 분위기와 선수들의 소식을 전한다.



수원시 - 28만9816명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플친을 보유한 수원시는 '통 큰 이벤트'로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벤트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부터 시립미술관까지 수원 관광지를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Partners with Kakao

2018년 3월호 (vol.4)

발행일 2018년 3월 15일

발행처 (주)카카오

발행인 임지훈

편집인 양현서

편집 김대원 전수민 김태완 박진석 박지혜 엄미숙

육심나 이경은 이재승 최승찬

디자인 디렉션 카카오 브랜드랩

디자인 김재현 박재연

외주 글 이혜승

외주 사진 김진솔

2017년 12월 15일 창간

브런치 주소 brunch.co.kr/@partnerswkakao

메일 partners.with@kakaocorp.com

본 Partners with Kakao의 판권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Partners with Kakao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에서 Partners with Kakao를 이용·가공·인용을 하시는 경우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마음버스는 진심을 신고

“어제도 별것 아닌 일로 엄마와 다투고 나가버렸어요.

저 때문에 충분히 지친 엄마와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마음을 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엄마와 화해하고픈 고3 딸의 사연 -

자칫 소원해지기 쉬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봄날 한강변의

멋진 야경을 벗 삼아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세요.

‘속마음버스’가 도와줄 거예요. 카카오와 사단법인 공감인이

함께하는 속마음버스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

선생님이 기획한 ‘속마음 대화법’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7300여 명의 승객들이

거쳐갔답니다.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건너 자유로를 달리다 상암을 거쳐

돌아오는 이 버스는 일요일을 빼고 매일 2~3회 운행됩니다. 한

번에 2명씩 2팀이 탈 수 있어요. 운행 시간은 100분입니다.



속마음버스
탑승 신청하려면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